

마음의 이야기

중국 당나라 때 유명한 시인인 백거이가 어느 날 작소 도림선사를 찾아가서 물었다고 한다.

“스님,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온갖 착한 일을 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諸惡莫作 衆善泰行 自淨其意 是諸佛教)”

무언가 심오하고 멋진 대답이 나올 줄 기대하고 있던 백거이는 실망하면서 말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별 것 아니군요. 그런 것 말고 뭔가 심오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진리는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생활 가운데에 있지요.

누구라도 알고 있는 쉬운 말인 것 같지만 팔십 먹은 노인이라도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 악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 하라는 것은 어린 아이도 다 아는 쉬운 말이다.

하지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 알기는 누구라도 다 알지만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는 알지 못해서 실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행합일(知行合一)이란 말이 있지 않은가.

여설수행(如說修行)이란 말도 같은 의미일 것이다.

말과 같이 수행한다는 것, 즉 말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일치한다는 뜻이다.

14대 달라이 라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이 행성에 온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기껏해야 구십 년이나 백 년을 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착하고 좋은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웃의 행복을 위해

어떤 것을 한다면 인생의 진실한 의미인 진정한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극한 진리는 어려운 것이 없다고 했다.

지금 이 순간, 여기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착한 일을 실천하고 마음을 닦음으로써 인

생의 진실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다.

- 진광 스님(경북 청도군 운문사 강사 스님)

텃 밭에 심었던 김장 배추가 잎이 들성들성합니다. 배추벌레가 먹은 듯하여 잡으려고 배춧 잎을 뒤졌지요.

벌레가 너무 예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니 문득, 벌레에게 부끄럽습니다.

배추 밭의 배추를 혼자 먹으려고 했던 마음이.. 쪼잔한 내 마음

心の話

中国唐の時の有名な詩人である白居易がある鵲巢の道樞禪師を尋ねて問ったと言う。

“お坊さん、仏様の教えることは何ですか？”

“悪い事をしないであらゆる善良な事をして、自らその心を清めることです。

(諸悪莫作 衆善奉行 自浄其意 是諸仏教)”

何か奥深くてすてきな返事があること期待していた白居易はがっかりしながら言った。

“仏様の教えも何でもありません。そんなこと以外に何か奥深い真理を教えてください。”

するとお坊さんはこのように言った。

“真理は難しいところにあ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今、私たちが暮らしているこの日常生活の中にありますね。

誰でも分かっている易しい言葉のようだが八十才の年寄りでも行うことは難しいです。”

そうだ。悪い事はせずに善良な事をしなさいということは幼い子供もすべて分かる易しい言葉だ。

しかし分かることと行うことは違う。分かることは誰でも分かるものの実践するのは易しくない。

分かっても行わなければそれは無駄だ。私たちは分からなくて実践しないのではなく分かりながらも実践しない。それで、“知行合一”という言葉があるのではないか。

“如説修行”という言葉も同じ意味であるでしょう。

言葉のように遂行するということが、即ち言うことと実践するのが一致するという意味だ。

14台ダルライラマは次のように言った。

“私たちはこの行星に来た旅人です。私たちはここでたかが九十年や百年を生きます。

私たちは暮らしながら善良で良いことをするように努力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若し、あなたが隣の幸せのために

どんなことをしたら人生の真実の意味である真の生の目的を見つけ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

過去はもう流れてしまったし未来はまだ来なかった。真の真理は難しいのがないと言った。今この瞬間、ここに私たちの日常生活の中で善良な事を実践して心を磨くことで人生の真実な

意味を捜す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

-ジングァンお坊さん (慶北清道郡雲門寺講師お坊さん)

野菜畑に植えたキムチ用の白菜の葉が疎らです。青虫が食べたように取ろうと白菜の葉を探したのです。

虫がとても綺麗で絵を描きました。そうしたらふっと、虫に恥ずかしいです。

韓国通信 2008年11月 第4週

白菜畑の白菜を一人で食べようと思った心が.. 気が小さい私の心